현불논단

민주시민이 바로 '전륜성왕'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붓다도 한 때 전륜성왕의 길 고민해
중생 구제 방편으로 정치 역할 인정
민주 정치 공동체 구현이 '정법정치'

한국 정치판서 '정치 공동체' 붕괴돼
극단 · 배척 · 닫힌 정치, 판치는 상황

붓다 고민한 전륜성왕이 필요한 시대
연기의 지혜로서 민주시민이 되는 것
이 시대 전륜성왕, 행동하는 민주시민

오늘날의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정치 공동체'가 붕괴되었다는 개탄의 소리가 매우 높다. 정치와 공동체라는 단어는 서로 짝이 될 수 없는 기름과 물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냉소적인 평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다. 미국 작가 맥켄(H.L. Macken)은 미국 정치인들에 대해 "선한 정치가란 정직한 도적만큼이나 생각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이를 어쩌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치를 폐기하지 않고 용인하고, 나아가 정치에 흥미를 느끼고 정치가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정치는 공동생활의 불가피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욕망, 이익 그리고 가치관을 실현할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도 한때 정치인의 길을 고뇌했다. 초기 경전 〈쌍윳다니카야〉의 내용을 인용해 본다.

어느 때 붓다는 코살라국 설산 지방 어느 숲속 암자에 머물러 계셨다. 붓다는 혼자 조용히 명상하고 계실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왕이 되어 남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빼앗김을 당하는 일도 없고, 남을 슬프게 할 일도 없고 스스로 슬플 일도 없도록, 한결같이 법대로 행하고 법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는 통치를 하면 어떨까?"

붓다가 이런 생각을 하자 악마는 기뻐하며 전륜성왕이 되기를 유혹했지만,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우기 어렵다며 그 유혹을 뿌리쳤다. 자비와 비폭력에 대한 붓다의 마음에는 정치 방편에 대한 고뇌가 서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붓다는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정치의 역할을 크게 인정하였다. 또한 정치권력의 타락과 통치자의 위험성을 잘 파악하고 여러 왕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

붓다는 중생구제의 길에 전륜성왕의 역할, 바로 정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전륜성왕은 붓다 탄생 시 이미 깊은 인연을 맺었고 수많은 불전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불교가 현세 지향적, 실천 지향적 성격이 강한 종교라는 것을 나타낸다. 붓다는 유의법(有爲法)으로서 세속제(世俗諦)로서 정치의 역할을 중시했다. 이것은 바로 민주적인 정치공동체를 구현하는 정법정치에서 구현되는 것일 것이다. 정법 정치의 핵심은 연기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여기서 중도의 정치, 관용의 정치, 열린 정치가 나온다. 지금 한국 정치는 극단의 정치, 배척의 정치, 닫힌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연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밝음을 보고, 선을 보면서 악을 본다. 극단을 피하고 집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양극단을 동시에 함께 보는 것이다. 즉, '잠자리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순수한 상대성에서 진정한 절대성이 나온다. 이러한 지혜에서 전륜성왕의 길이 나올 것이다.

붓다가 주저한 전륜성왕의 길을 이제 한국 불자가 실천해 보자. 그것은 연기의 지혜로서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제 전륜성왕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깨어남으로 행동하는 민주시민이다. 사족 하나. 한국정치 마당의 용어가 하도 심해 〈천수경〉의 '정구업진언'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社 說

캠퍼스에 부는 새로운 불교 바람 기대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은 3월의 대학 캠퍼스.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 사이로 은은한 목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새학기를 맞아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가 마련한 대불련 홍보부스에서다.

대불련이 젊음의 활기가 넘치고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새내기 회원 모집에 돌입했다. 동자승 탈을 쓰고 동아리 홍보물을 전달하는가 하면 부스에서는 연꽃 만들기, 목탁체험 활동이 펼쳐진다.

생경한 목탁소리에 이끌려 부스를 찾은 새내기들이 대불련 선배들로부터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템플스테이, 봉사활동, 정기법회 등 청년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듣고 나면 불교 동아리에 대한 큰 관심을 표한다는 게 현장에서의 진언이다.

대불련은 불교의 신앙과 신행활동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청년 포교의 핵심 동력이다. 특히 지역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각종 봉사와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서의 신행활동에 근간이 되곤 한다.

젊은 시절 종교는 한사람의 인생과 세계관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수한 열정과 희망, 때로는 고뇌로 가득 찬 시절 택한 종교는 그만큼 깊다. 삶의 철학을 배우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들이 만나 도반으로 함께 성장하면서 불교적 실천을 이끌어가는 구도자도 탄생할 수 있다. 탈종교화 등 위기상황에서도 대학생 포교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대불련은 3월 한 달간 종립학교 동국대를 비롯해 서울대, 경희대, 전남대, 대전대 등 전국 20여 학교에서 불교 동아리 홍보에 나선다. 한국불교의 미래 주역인 대불련의 적극적인 행보로 캠퍼스에 새로운 불교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승가결사체 지속 발전 기대한다

2023년도 조계종 승가결사체 인증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2018년 시작 이래 인증단체에 대한 인증서 전달식은 꾸준히 진행됐지만, 올해 전달식을 조금 특별했다. 교육원과 단체 간 소통을 위해 간담회 형태로 열려서다. 조계종 교육원 3월 2일부터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별 일정으로 불참한 4개 단체를 제외하고 총 24개 단체에게 인증서가 전달됐다.

간담회에서는 단체 간 활동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포교와 출가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스님들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를 위해 계층별 전국 연합 템플스테이를 종단 차원에 개최하는 등의 포교 아이디어를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교육원은 승가결사체 활동 분야로 '출가장려'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법 · 호스피스 · 해외구호 · 무료급식 · 환경사업 등을 진행하는 스님들의 모임을 연수인증 단체로 선정 ·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가결사체 구성을 독려하고 연수 인증에 지원금까지 수여하는 것은 모두 스님들의 전법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출가장려 분야를 추가해 출가자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교육원의 복안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비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많은 '탈종교사회'에 접어들었다. 또한 가족 간 종교 일치율이 늘어나며 개종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새로운 신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스님들이 펼치는 승가결사체의 전법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승가결사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⑫ 영화 '아바타: 물의 길'

소아적 가족주의로 퇴행한 속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물의 길'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SF의 새 장을 연 '아바타' 발표 이후 13년 만에 발표된 후속작인 이 영화는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 부부의 가족이 지구인들의 공격에 저항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편이 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후속작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바타의 전작이 놀라웠던 것은 SF의 신기술을 보여줬던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심원한 주제를 긴장감 있는 서사에 잘 용해했기 때문이다.

전작의 서사는 미국의 형성 과정에서 이뤄진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총포로 무장한 백인들은 지구인으로, 활과 칼로 맞서 싸운 원주민들은 나비족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전의 할리우드 영화와 달리 이 영화는 지구인이 아닌 나비족 입장에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원주민 학살에 대한 일종의 참회로도 읽힌다.

특히, 나비족의 삶의 터전인 숲은 낱낱의 생명체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연기론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자연을 개발의 도구로만 봤던 근대적 시작의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작은 주체와 객체를 분류하는 소아적인 인간의 사고가 아닌 주체와 객체를 통합하는 대아적인 자연의 사고를 보여줬다.

반면 후속작은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 부부의 입장에서 서사가 전개되다 보니 소아적 가족주의로 퇴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바타: 물의 길'은 지구인들이 판도라 행성에서 다시 침범하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숲의 마을의 지도자격인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 부부가 자신들의 가족만 살기 위해서 숲을 떠나서 바다로 향한다. 바다마을로 망명한 뒤 이 가족이 '물의 길'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숭고하다. "물의 길은 시작도 끝도 없다. 물의 길은 모든 걸 잇는다. 바다는 주고 바다는 취한다"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물의 길'은 생명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

'물의 길'을 담은 카메라 워크는 그야말로 판타스틱하고, 지구인들의 툴쿤 사냥장면은 인간들의 고래사냥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하나야. 그것이 강점이자 약점이지"라는 대사가 대변하듯 이 영화의 강점이자 약점은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것만은 변치 않아.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가족이 요새야"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 부부의 가족은 가족이라는 요새 안에서 똘똘 뭉쳤고, "아빠는 지킨다. 그것이 존재 이유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제이크 설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심지어 가족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네이티리는 쿼리치의 아바타와 싸우는 과정에서 스파이더를 인질로 잡고 칼로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키리를 인질로 삼은 쿼리치 아바타에게 네이티리가 스파이더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 하는 말은 "아들에는 아들로 갚는다"는 것이다. 스파이더는 아버지의 기억을 갖고 있는 쿼리치 아바타의 손길을 뿌리치고 설리 가족에게 돌아가지만 설리 가족 중 누구도 스파이더의 안부를 묻지 않는다.

어쩌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간과한 것은 아닐까? '물의 길'에서는 가족이라는 요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